

수석·최연소 합격기
[2013년(제29회)입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최연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보다 더 클 수 없다”



이 혜 원

- 명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3년 재학 중
- 2013년(제29회) 입법고시 일반행정직렬 수석·최연소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3년 제29회 입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이혜원(일반행정직)입니다. 합격수기 부탁을 받고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의 수험생활과 공부 방법 등을 담담하게 적으려 합니다. 최연소로 합격하였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수기이지만 입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시작하는 초심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수험생활

저는 2010년 여름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시, 공무원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저의 구체적인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고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심분야였던 경제 관련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취업과 달리 1,2학년 때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고, 저의 노력과 성과가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2010년 여름에 신림동에서 황종휴 경제학 1순환(실강), 김기홍 행정법 예비순환(인강)을 들었고 2학기에는 다시 학교로 들어와 고시 반에 입실하였습니다. 2010년 2학기에는 경제학을 복습하고 행정법도 교과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2차 공부보다는 1차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고시 반에서 PSAT스터디를 하면서 언어, 자료, 상황 기본서 각 2

권, 행시 및 입시 기출분석, 모강풀이를 했으며 피셋에 집중한 결과 2011 행시 1차에서 합격할 수 있었고, 이때의 공부가 밑거름이 되어 그 이후에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2차 기간에는 신림동에서 3순환을 듣기는 무리라고 판단해 고시 반에서 2차 준비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강의보다는 교과서만을 보고, 문제풀이나 답안작성에는 소홀해 실제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부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학, 행정법에만 집중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야 했지만 강약조절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2학기에는 2차 시험을 돌아보며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김기홍 행정법 1순환, 박경효 행정학 1순환(예비는 2011년 1학기에 수강)을 듣고 경제학도 교과서에서 벗어나 zip, 연습문제로 나아가 문제풀이에 보다 집중했습니다. 행정법도 강사 모의고사를 구해 풀었고 행정학은 예비, 1순환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행정학을 보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1년 초시 때의 2차 점수는 정치학은 비교적 높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40대 중반의 점수가 나왔고, 경제학 점수는 특히 낮았습니다.

2012년 1차 합격 후, 신림동으로 가 2차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이 제 수험생활 중 가장 열심히 한 기간이었고, 저의 합격에 큰 바탕이 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3순환을 따라가면서

(김진욱-김기홍-박경효-신희섭-강제명 정보체계론) 기출 스티디를 구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고시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1년간 공부가 많이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순환을 따라가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비-1-2-3순환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어려웠다기 보다는 답안을 거의 써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 수업시간마다 답안작성이 힘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오픈 북으로 작성하였고 저녁기출 답안스티디도 문제를 먼저 정하면 따로 공부하고, 초반에는 답안을 먼저 써보고 스티디에서 다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50점정도 답안을 쓰고, 학원수업 이후 복습 및 누적복습을 반복하면서 실력이 점차 높아져 3순환이 끝날 무렵에는 모든 과목을 무리 없이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4순환 기간에는 강사 프린트 등을 과목별로 계속 반복하여 보았고 반복할수록 과목을 보는 속도가 빨라져 한 달여 기간 동안 각 과목을 4번 정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 2차 점수는 경제학 60점, 행정법 53점, 행정학 49점, 정치학 55점, 정보체계론 28점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합격선에는 1점정도 부족했습니다. 낮은 행정학 점수와 경제학 2문에서 너무 리카도 대등정리에 집중해 다양한 이론들을 끌어와 설명하지 않은 점이 낙방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2학기에는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고시 반에서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부가 어

는 정도 되어있고, 답안도 많이 써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3순환의 연장선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행정법은 사시 기출 및 박정훈 사례집을 꾸준히 풀었고 다른 과목도 기출문제 및 3,4순환 모의고사로 답안 작성을 하는 한편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 중 정치학, 정보체계론의 경우는 3순환 강의를 한번 들은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공부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정치학은 신회섭 1순환을 들었고, 정보체계론은 여러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PSAT기간에는 피셋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내년에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2차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PSAT과 2차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자상 기본서 2회독 및 행시입시 기출분석, 모강 풀이의 양을 본다면 그 전 해와 실질적인 차이가 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3년 1차를 합격하고, 다시 신림에 들어와 3순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유독 1차가 빨라 1차와 3순환 개강 전에 2주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2012년 김진욱, 황중휴의 3,4순환을 하루에 200점씩 2주간 하는 스터디에서 답안을 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SAT기간에 다소 떨어졌던 경제학에 대한 감을 끌어올려 준비된 상태에서 경제학 3순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실강을 수강하고, 저녁 스터디에서 50점 답안 스터디를 했고 특히 답안피드백에 집중했습니다. 스터디원들끼리 답안을 돌려보며 꼼꼼히 첨삭

해주었고 학원에서 채점된 답안지를 받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해 보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2차 답안 스터디의 경우 스터디원들의 실력이 모두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답안을 첨삭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법 기간에는 중간에 입법고시 1차 시험이 있었는데, PSAT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기출을 푸는 식으로 총 3개년의 입시기출을 풀고 시험을 봤습니다. 푸는 도중에도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채점 결과 합격예상 컷에서 걸리는 애매한 점수라 1차 합격발표 전까지는 합격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못하고 평소와 비슷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1차를 합격하면서 1차 합격발표일과 2차 시험일이 3주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학까지만 3순환을 수강하고 입시2차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목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입법고시 기출스터디 및 기존에 하고 있던 스터디까지 하루 200~300점의 답안을 썼습니다. 또한 신회섭 정치학 답안스터디를 수강해 부족했던 정치학 답안을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2차 이후에는 입시에 대한 기대 및 불안함과 입시든 행시든 올해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겹쳐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자율스터디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행시 준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입시 2차 직후에는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수했던 것만 생각나는 등 불안함이 커 입시2차 발표 때에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다행히

결과적으로 합격했고 그날 바로 3차 면접 스테디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에 집중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차 점수는 경제학 74점, 행정법 63점, 행정학 62점, 정치학 65점, 정보체계론 30점(평균 65.62점)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III. 공부 방법

1. PSAT 공부 방법

저의 경우 초시 때 PSAT에 집중해서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초부터 PSAT공부를 시작하여 하루의 반 이상을 피셋에 투자하였고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하루의 대부분을 피셋에 할애하여 시험까지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학교 고시 반에서 스테디를 구해 공부하였는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과목마다 2권 정도의 기본서를 꼼꼼히 봤고 기출문제의 경우 행정고시, 입법고시 6~7년간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는 LEET문제 중에서도 PSAT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었고 모강 중에서는 자료해석 모강을 주로 풀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정답과 오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와 같이 보기를 먼저 보는 문제는 보기에서 나온 키워드가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며 오답을 유

도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주제 찾기와 같이 지문을 먼저 보는 문제는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모든 근거는 분명히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찾고 느낀 점을 적어두었다가 다음에 풀 때 활용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 문제의 경우 단기간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서나 짧은 특강을 통해 기본원리를 습득하고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료해석은 상대적으로 연습을 통해 점수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료해석에 자신이 없어 신현 자료해석 기본강의를 들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기본서를 보면서 유형을 파악하고 계산 팁 등을 활용해 수록되어있는 연습문제 등을 계속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해석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강을 풀고 강의나 스테디를 활용하여 팁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은 유형이 다양하고 문제 난이도 편차가 큰 경우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 관련 문제, 추론 문제, 퀴즈 문제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마다 접근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 잘 나와 있는 기본서를 보고 필요 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 문제는 주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다가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론 문제 등은 언어 논리와 유사하고, 퀴즈의 경우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법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는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입시 PSAT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골라내고 쉬운 문제에 집중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우선 넘기면서 풀어보는 것도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2차 과목 공부 방법

사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제가 한 공부 방법 일수도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고시공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겪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2년~3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공부방법 등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모두 다르고, 개인적인 견해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학원 수업 선택

요약하자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학원의 순환을 따라가면서 복습하고 답안 스티디(기출 필수)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순환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경제학, 행정법은 1순환-3순환, 행정학은 예비-1순환-3순환, 정치학은 1순환-3순환, 선택과목은 1순환-3순환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학과 선택과목의 경우는 3순환만 듣는 경우도 있고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이나 논문을 통해 공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순환이 필수는 아닙니다. 강의 선택은 현재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더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경제학은 2순환까지는 황중휴, 3순환은 김진욱 강의를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김진욱 강사님의 강의를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모든 강사님이 좋기 때문에 강사 선택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김기홍, 류준세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행정학은 박경효 교수님의 수업을 주로 들었지만 답안과 관련해서는 송윤현 교수님이 꼼꼼하게 첨삭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과 선택과목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강사를 선택하되 1순환과 3순환을 둘 다 듣는다면 강사를 다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듣는다면 2차가 끝나고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2학기에 주요3과목의 2순환을 듣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수업은 다른 순환은 상관없지만 3순환만은 실강 또는 영상반을 들으면서 매일 답안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1순환 시기

수업 때에는 집중하고 수업 이후에는 철저한 복습이 필수적입니다. 교과서는 이 시기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와 강의 자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환 때는 강사님이 나눠준 자료와 기본서를 해당 진도 별로 반복해서 숙지하되 경제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연습문제를, 1순환 이후 실력이 쌓인다면 2순환 등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0제의 경우에는 풀면 좋지만 양이 많고, 자세한 해설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꼭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00제는 부분적으로만 풀었습니다. 행정법은 교과서를 처음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니 3회독 정도 하기를 추천하고, 그 이후에는 강사기본서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행정학은 저의 경우 재미있는 행정학과 한국행정학을 진도 별로 보고, 모범 답안을 읽어보면서 답안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서와 강의 자료가 잘 나와 있는 편이므로 굳이 여러 종류의 책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은 1순환시기에 자세히 적혀 있는 기본서를 보되 흔히 읽는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국제정세의 이해 등을 가볍게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택과목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정보체계론의 경우 양이 적기 때문에 강사 자료만을 주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1순환 이후~3순환 수강 전 + 답안 작성법

1순환을 들을 때는 제대로 복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순환 이후 3순환 전, 즉 2순환 시기에는 수업을 듣기보다는 복습을 다시 하고 본격적으로 답안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은 한 번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물어서라도 해결을 하고 해당 분량에 맞추어 답안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진도 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가능하면 기출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김진옥 모의고사의 zip 3판을 보면 앞부분에 진도별 기출문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출에서 가장 최근의 행시 모의고사를 답안으로 쓰고,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기만 하는 식으로 공부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쓰실 때는 모범답안을 보고 형식을 파악하고 모범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제학은 정확한 개념과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중요한 수식을 부각시키되 답뿐만 아니라 풀이과정도 적어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산 실수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답이 맞는지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문제의 소재를 한꺼번에 쓰는 것은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각 문제 별로 문제 상황을 쓰고, 판례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판례 문구를 그대로 따다 쓰는 것이 좋고, 특히 검토를 참조조문에 있는 법조문을 끌어와 상황을 포섭하여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설은 너무 길거나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행정학, 정치학, 선택과목은 저도 자신 있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언하기 어렵지만 중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외우고, 답안 틀에 맞추어 쉽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써야 하지만 신문에 조그맣게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 누구나 알만한 사례가 오히려 좋습니다. 강사가 직접 하는 답안 스테디를 듣거나 실력 있는 스테디 원들이나 주변의 합격생에게 답안을 보여주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3순환 수강 기간

3순환에는 실강을 수강하고 매일 있는 답안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답안스테디를 병행하게 되는데 3순환 기간에는 50점(총 100점), 4순환 기간에는 100점(총 200점) 스테디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순환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강사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미루지 않고 암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3순환 시기는 합격의 가장 큰 발판이고 다른 시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시기에 소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그 외의 기간

2차 이후 기간 등 시간이 남은 때에는 2순환 강의를 수강하거나 행정법 사례집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출도 이미 풀어 본 행시가 아닌 입시, 사시기출을 본다던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강의를 통해 내용을 다시 보고 답안을 써본다던지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요

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V. 스테디 및 시간 관리

저의 경우 스테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주위 수험생 분이나 합격자 분들을 보더라도 스테디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테디 활용 여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테디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 더 잘되는 편이고 혼자 하면 미루게 되는 반면 책임감은 큰 성격이기 때문에 스테디가 잘 맞았습니다. 신림동에서 생활하는 2차기간 동안에는 하루를 스테디 중심으로 여러 개로 나눠 한 장소에서 3시간 이상 있지 않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침 출석체크 스테디-오전 자율 스테디-오후 학원 실강-저녁 답안스테디 및 스텝위치 체크 스테디를 활용해 풀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답안스테디의 경우 서로 답안을 돌려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짚어 줄 수 있고 나의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어 답안을 집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쓸 때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텝위치로 순 공부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시간낭비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투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부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6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 하루는 완전히 쉬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한 주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주중에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체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는 쉬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지만 슬럼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들더라도 계속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공부가 안되면 카페에 가서라도, 음악을 들으면서라도 계속 공부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가 사라지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V. 면접 준비

입법고시의 경우 2차 발표와 면접 때까지의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자들이 모여 예비 모임을 갖고 다음날부터 바로 면접 스테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행정 직렬이 모두 모여 스테디를 했지만 입법고시는 면접을 할 조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일반 행정 직렬 모두가 공유하되 1조, 2조로 나누어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조별토론을 위한 예상 이슈를 각자 하나씩 맡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총 2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조별토론은 매일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슈 중 2개를 골라서 했고 토론이 끝나면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유 형식으로 2페이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첫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대외활동 경험도 없고 학교생활 및 고시 공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경험이 없더라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 등 일화를 활용해 성실함, 리더십, 조율능력, 공직생활에의 의지 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자기소개서를 서로 침삭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기한 내에 빠르게 마무리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면접의 경우 자기소개서 내의 질문뿐만 아니라 시사 이슈도 자주 나오는 편이므로 개별면접 때 다양한 질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I. 마치며

제 좌우명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보다 더 클 수 없다'입니다.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열심히 한다면 결국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 기간 동안 항상 힘을 주신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 힘들 때마다 응원해 준 민영이를 비롯한 친구들과 가족 같은 학교 고시 반 식구들, 함께 스테디했던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판료가 되겠습니다.